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불안 심리에 관한 인체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 전공
진 귀 원

불안 심리에 관한 인체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김정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 전공

진 귀 원

인 준 서

진위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예술작품이나 미술품이 고독한 한 천재의 영감 어린 창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를 바탕으로 생산·유통·분배·소비 되는 것임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미술 작품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라는 말은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 박탈감이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가혹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 가치, 문명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배경으로 동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불안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위협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위치가 ‘불확정’적이며, 형태가 ‘불확실’하다면 대처할 수 없고 그것은 곧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적 위협’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해 파생된 청년세대 하위문화를 통해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패배자의 정서와 작품의 형식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 근간이 되는 ‘불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새로운 토대를 삼고자 한다. 저항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소비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 코드를 통해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과 야만성에 대해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본인 작업의 조형적 기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저항 예술의 사회적 기능	3
2)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	7
3) 한국사회의 불안 심리	10
2. 작품의 표현방법	
1) 청년세대 하위문화의 표현	13
2) 소비사회의 인체 표현	17
3. 작품분석	20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Interview, F.R.P, 우레탄도장, 500X400X1200mm, 2010 20
- [작품2] Trapped, F.R.P, 우레탄도장, 강철, 1500X500X1300mm, 2011 . . . 22
- [작품3] 긴급체포, F.R.P, 우레탄도장, 800X1200X450mm, 2012 24
- [작품4] Loser, F.R.P, 우레탄도장, 500x1900x500mm, 2012 26
- [작품5] Terrorist F.R.P, 우레탄도장, 450X200X400mm, 2009 28
- [작품6] 맹목적 의지, F.R.P, 우레탄도장. 400X160X80mm, 2012 28
- [작품7] Lacoste girl, F.R.P, 우레탄도장, 1650X600x400mm, 2009 30
- [작품8] Urban anacondas, F.R.P, 우레탄도장, 700X2500X600mm, 2009 . . . 32

I. 서론

불안이란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불일치, 혹은 존재와 인식 사이의 괴리가 예상되거나 자각될 때 야기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명확한 실재 없이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포(fear)와 구분된다. 공포와 불안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두 가지는 구분된다. 대체로 공포가 인과적이고 경험적이라면 불안은 근본적이고 선형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¹⁾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러우며 생존의 필수적 감정이다. 하지만 현대인이 겪는 불안은 지그문트 바우만²⁾이 말했던 ‘파생적 공포’ 즉, 불확실한 것에서 나오는 공포다.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조작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다. 어떤 규칙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공포, 그 감새가 여기저기서 선뜻선뜻 나타나지만, 결코 통째로 드러나지는 않는 공포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하다.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불안함의 감각’, ‘취약함의 감각’을 포함한다.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그것에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것, 달려들어 맞서 싸우려 해도, 싸워볼 도리가 없다는 것에 좌절한다.

그러나 우리를 압도하는 이러한 ‘불안’이라는 감정이 확실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눈앞에 현존한다면 우리에게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비극적 상황에 빠져있으며 고통받는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발랄한 색상과 풍자적 요소들은 비극미와 희극미의 혼합감정을 일으켜 슬픔에 빠져 울음을 터뜨리고 나면 마음이 가뽀해지는 것과 같은 감정의 정화를 일으킨

1) [네이버 지식백과] 불안 [Anxiety]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2)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1925년 11월 19일 -)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다. 폴란드공산당에 의해 조직된 반유대주의 축출운동에 의해 1971년 망명한 이후에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리즈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1990년부터는 명예 교수)로서, 바우만은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그리고 포스트모던 소비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문제점이 사실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많은 경우 보편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본인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은 2013년 1월 석사 청구전에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야만의 비극적 본질을 모색하고 풍자적 조형성을 통해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른 연구방법으로

제 II장 본론의 1절 작품의 형성배경에서는 저항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탐구를 통해 본인 작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지위의 불안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인이 좌절과 분노,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절 작품의 표현방법에서는 획일적 소비자본 문화에서 파생된 저항적 하위 문화가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소비사회에서 가지는 인체의 의미를 통해 작품 속 인체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3절 작품분석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부작용을 개개의 작품들이 가지는 풍자적 형태와 의미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 III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정리하여 저항과 비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 새로운 작업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불안 심리를 구조적 모순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인 작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본인 작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배경

1) 저항 예술의 사회적 기능

예술은 사회와 역사로부터 벗어난 고립된 형식으로서 순수 미적 탐구라는 공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 하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런 예술작품 속에는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에른스트 피셔³⁾는 “모든 예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또한 역사적 계기를 통해 인간성의 계기를 창조하는 부단한 발전을 약속해준다. 현대 예술이 인간을 안심시키는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 예술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우리 시대의 참된 예술은 불안의 예술이다. 그것은 현실 질서를 거부하고 현존 질서를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하는 저항의 예술이다.

1980년대의 한국미술에 있어서 민중미술은 그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주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1980년 10월 17일 오후, <현실과 발언>은 동숭동의 전시장(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촛불을 켜고 첫 전시를 시작하였다. 당시 전시관 측이 ‘작품의 불온성을 이유’로 ‘전시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시개막일에 전시장 전기 스위치를 모두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30분 만에 막을 내린 이 전시는 인사동의 동산방화랑에서 창립전을 다시 열었다. 이들은 <현실과 발언>이라는 이름답게 ‘미술을 통해 민중현실을 발언’하고자 했다.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과, 민족분단, 일상생활을 발견 등 주제

3) 에른스트 피셔 (Ernst Fischer, 1899-1972)는 루카치의 미학적 입장을 발전시킨 오스트리아 출신의 예술 비평가다. 그는 관에 박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이론적 생산력을 회복하려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입장의 소유자였다. 그는 ‘신오스트리아’(Newes Osterreich)의 편집 책임자로 있었으며, 1959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문예 분야의 활동에 전념했다. 피셔는 이 책 이후 1964년 비엔나에서 『시대정신과 문학』이라는 저서를 내놓았고, 1969년에는 영역판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예술』을 출간하였다. 국내에서는 『창작과 비평』 1971년 봄호(통권20호)에 『오늘의 예술적 상황』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주목받아 왔다.

4) 에른스트 피셔(Ernst Fisc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 1993)

와 내용 모두 신선한 전시였다. 한국현대미술사에 있어서 민중미술은 해방 이후 현실과는 유리된 채 형식주의와 순수주의로 일관하던 기존의 미술계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또한 본격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보여준 대규모의 집단적인 미술운동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벌인 대규모 사회변혁 운동인 ‘68혁명’⁵⁾은 도덕과 가치관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문화혁명에 비유되었다. 68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결성된 민중공방⁶⁾의 전투적인 미술가들이 기존의 질서 즉 부르주아 예술과 문화를 비판하면서 지향점으로 삼은 것은 부르주아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고립상태의 (고급)미술을 대중미술 쪽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해방된 미술은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술창작의 선결조건은 무엇보다 작가 스스로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특권적 지위를 허무는 것이었다. 68년을 전후하여 진보적 성향의 투사적 작가들이 ‘독자적’이고 ‘천재적’이며 영원한 예술‘의 창조자로서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 혹은 기술자로 자처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상/하 구분의 위계적이고 계급 지배적인 보수적 사회질서가 빚어 낸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허무는 동시에, 고급 혹은 진지한 미술/저급 혹은 가벼운 미술 사이의 간격을 매우고자 하는 변혁의지의 적극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68운동이 정치적으로 실패했지만 문화적으로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렇듯 저항미술과 같은 전위적 예술이 지속적으로 관객-대중에게 비판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5) 5월 혁명(五月革命) 또는 68 혁명(프랑스어: Mai 68, May 68, 독일어: Mai 68), 또는 프랑스 5월 혁명은 프랑스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의 모순으로 인한 저항운동과 총파업투쟁을 뜻한다. 처음에는 파리의 몇몇 대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행정부와 경찰에 대한 학생 봉기로 시작했다. 좌파연합인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과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의 실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복귀했다. 6월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드골의 정당은 이전보다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드골은 이듬해 물러나고 말았다.

6) 민중공방(Atelier Populaire)은 1968년 5월의 파리학생 운동 당시 드골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에 항거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 아틀리에다. 이곳에서 제작된 선동적인 포스터들은 시내 곳곳에 붙여졌고 이 저항운동을 잘 말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능동적 주체로 존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또 급진적 좌파 계열의 작가들이 68운동의 좌절 이후에도 저항미술을 계속 산출해내면서 대중의식의 각성제 역할을 수행해나간 것은 문화혁명으로서의 68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학생들이 주도한 68운동은 이미 그해 6월 말에 종결되었지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저항미술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처럼 68정신이 이들 미술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활화산으로 타오르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⁷⁾

현대미술계에서 저항의 도구로서 예술을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는 2011년 영국의 미술 전문지<아트 리뷰>에 의해 세계 미술계 파워 100위 가운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아이 웨이웨이이다. 2008년 스촨성 지진사태 당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국정부는 희생자의 수와 신원조차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분노한 아이 웨이웨이는 자발적 시민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가 대신 실태를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여 그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낱낱이 올림으로써 중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아트 리뷰의 편집자인 마크 라폴트는 “아이 웨이웨이는 내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영역에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시위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예술의 더 넓은 정치적 역할을 상기시켰다”⁸⁾고 평했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 제스처’ 통해 도리어 자본과 긴밀히 결탁하며 큰 수혜를 입는 아트스타들 사이에서 아이 웨이웨이의 육중한 존재감은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는 예술의 장을 삶으로 옮겨놓고 예술과 삶이 하나임을 실제 삶과 작품으로 입증하고 있는 드문 아티스트인 것이다.

어떤 의미로, 재난과 참사를 소재로 전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현대미술의 ‘고질적 제스처’에 불과 할 수 있다. 우리는 바야흐로 언론과 책과, 영화와

7) 「프랑스 68운동과 미술의 변화 : 미술의 대중화와 저항미술의 부상」, 안영현 ; 김지혜 ,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7권 1호 통권 제 13집(2005. 2) pp.217-239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2005.02.25

8) Mark Rappolt, 「Art Reviwe, oct. 2011 」

미술 작품 도처에서 재난과 참사에 대한 동정적 혹은 비판적 외침들이 끈질기게 그러나 공허히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 웨이웨이가 다른 점이라면, 그에게는 비단 이 전시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일련의 조사 및 블로그 활동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약(혹자들이 자신을 부르듯) ‘예술가’라면, 이 때 예술은 바로 삶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쓰촨성 참사 조사는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의 조건, 그들이 자유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⁹⁾

9) 방혜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0월호」

2)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

육체적 생존과 정신의 기쁨, 즉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의식함과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존재로 발전해 왔다. 사회전체의 행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의식적으로든 무의적으로든, 인간 본성에 대한 자신의 식견(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지식과 정보)을 토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행복 추구 과정을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일상적 행위들을 경험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개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문제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은 늘 뭔가의 기회비용을 치르면서 선택을 해나가고, 사람들 각자의 선택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쟁 속에서 실현된다.¹⁰⁾

서양이 2,000년간 물질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왜 사람이 가난하고, 무엇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옹보의 관점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¹¹⁾ 가난의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앓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래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

부와 가난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대하여 19세기의 사회 진화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돈, 일자리, 존경이라는 빈약한 자원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하며, 일부는 우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부당한 이점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뒤처진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은데

10) 배 민, 「우리 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책과 나무, 2013), p26

11) 알랭 드 보통, 「불안」, (이레, 2005), p85

있기 때문이며 부자는 도덕적 관점에서 그들보다 더 낮지 않지만 천성으로는 더 낮다고 보았다. 그들은 더 힘이 세며, 그들의 씨는 더 강하며, 그들의 정신은 더 빈틈없다. 그들은 인간의 정글에서 생물학적 원리 - 19세기가 맹종했던 새로운 신 같은 개념이었다. - 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승리할 운명을 타고난 호랑이들이었다. 부자는 생물학적 원리가 원해서 부자가 된 것이고, 빈자 역시 생물학적 원리가 원했기 때문에 빈자가 된 것이다.

나아가 진화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이른 죽음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약자는 자연의 실수이며, 재생산을 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전에 소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동물의 왕국이 기형으로 태어난 짐승을 포기하듯이, 인간 세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짓밟힌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게 놔두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이었다.¹²⁾ 더 가혹한 의견들에 따르면, 사회적 위계는 단계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의 자질을 엄격하게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게으름뱅이가 실패할 조건은 이미 굳어져 있는 셈이고, 결국, 자선, 복지, 재분배 장치, 단순한 동정의 필요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위대한 정치혁명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지만 성취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래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었다.

이 세계의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 밀어붙이냐에 달려있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수모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은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 하나는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12) 알랭 드 보통, 「불안」, (이레, 2005), p114-115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에서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의 물질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이 실패를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지목하는 집요한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패배자’라는 말은 졌다는 의미와 더불어 졌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권리도 상실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냉혹한 말이다.¹³⁾

한국 사회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육체적 생명에 대한 원초적 위협이기도 하지만 경쟁에서의 패배는 크나큰 수치심을 유발한다. 사회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사회적 생명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불안증폭사회〉 저자 김태형은 한국 사회에서 패자에 대한 차별과 경멸을 보라고 한다.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회적 대접도 극명하게 차별되지만, 승자 독식원리가 초래하는 엄청난 소득격차, 패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존중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과거 일제식민지 시대에 애국자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¹⁴⁾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만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즉 사회적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자신이 사회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면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심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떠안고 사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다.

13) 같은 책, p202

14)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2011, 위즈덤 하우스), p29

3) 한국사회의 불안 심리

한국사회의 10대, 20대의 청년들은 경쟁원리가 도입된 학교에서 공부기계가 될 것을 강요당했으며 경쟁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체험하면서 자랐다. 경쟁적 관계는 끊임없는 상호비교와 갈등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강요당했으며 그것을 치유하지 못했다. 교육현장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와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침투시킨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예비범죄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총을 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할 뿐더러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반국가사범으로 자라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결과 나라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된 셈이다.¹⁵⁾

노동시장에서 십대는 '가장 싼 값에, 가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노동력'이다. 또한 십대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노동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대들은 교육 장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마케팅 장치에 의해 극단적으로 착취당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적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적용된 자본주의 마케팅으로 인해 10대들의 정신세계만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대들의 다양한 감수성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과시적 소비'로 채워버린 셈이다. 이 상황은 단순히 10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부모 세대의 고통과 연결된다.

10대들의 경쟁교육을 통한 서열화와 획일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에 대한 현실들은 [작품 2] 뒷에 다리를 잡힌 여고생과 같이 표현된다. 여고생은 수척하며 썩한 눈을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고통으

15)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2011, 위즈덤 하우스), p262

로 움켜진 다리는 피가 흘러 양말로 스며들고 있다. 덧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닦칠 수 있는 재앙들이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본주의사회와 무한경쟁의 폐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높은 십대의 자살률로 반증된다. 여학생을 둘러싸고 설치된 덧들은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무력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위협적 요소들은 본인 작품 속에서 이와 같이 직설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된다.

한국의 불안의 심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있다. 한국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안전망의 부재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낙후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꼴찌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후진국이다. 만일 실업을 당하더라도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실업급여가 보장되고 재취업이 용이하다면, 그리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밀려나더라도 퇴직금으로 가정과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살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일자리 걱정, 병 걱정, 노후 걱정, 자식교육 걱정 따위를 안 해도 되게끔 보장해준다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거의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의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참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말해, 한국사회의 가장에게 있어 경쟁에서의 낙오와 패배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쪽박을 차고 길거리에 나왔게 될 거라는 극단적인 공포와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결부되어 있다.¹⁶⁾

신문 사회면의 사건사고가, 무섭게 증가하는 자살률이 개개인의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통스럽고 모순된 구조의 경고이다. 젊은 세대의 성찰 없는 삶과 낙약함, 끝이 없는 욕망을 사회에서는 비판하지만 그것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비극적 상황 속에 길들여진, 비극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다.

16)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2011, 위즈덤 하우스), p22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처럼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표출인 ‘묻지마 범죄’와 인간성이 상실된 끔찍한 범죄 등의 사회문제들이 개인의 인격이나 유전적 설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공격성은 타고나는 본능이나 본성이 아니다. 범죄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공격성이 본성이 아니라면 왜 우리사회의 공격성이 지금 와서 이토록 드러나는가?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론은 욕구좌절-분노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 욕구가 좌절되면 분노감정을 느끼게 되고 욕구를 좌절시킨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강력한 범죄를 통해 드러나는 공격성은 한국사회가 본능적 사회욕구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좌절적 폭력성은 [작품 4] 에일리언의 머리를 통해 표현된다. 싸구려 슬리퍼를 신고 가느다란 다리가 힘겹게 몸과 에일리언 머리를 지지하고 있는 이 작품은 무력감 속에 잠재된 폭력성에 대해 말한다. 슬리퍼 바깥으로 빠져나온 발가락이 그의 초라한 일상을 암시한다. 작품의 제목도 〈루저〉로 작품속의 인물은 사회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패배한 인간들의 표상이다. 에일리언은 인간이나 동물 등 다른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태어나고, 자라난 성체는 압도적 무력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패배의 무기력 속에 잠재된 사회의 분노를 나약한 인간과 흉포한 괴물을 통해 표현된다.

사실 분노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감정으로 꼭 필요하고 유익한 감정이다. 외부의 위협요인이나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발생하면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즉각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고, 분노감정은 외부적 위협을 공격하거나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방어하는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성과 분노는 그 자체로서는 악이 아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이나 해결되지 않은 분노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분노나 공격성이 사람이 가진 악한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병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작품의 표현방법

1) 청년세대 하위문화의 표현

〈문화부족의 사회〉의 저자 이동연¹⁷⁾은 1990년대의 문화가 이전까지의 시대들과 갖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문화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통제되는가 아니면 개인들의 자율성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1980년대의 문화적 사건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치적 결정의 부산물로만 가능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문화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이념의 해체, 문민정부의 출범, 글로벌화 된 소비문화 공간의 출현, 대학문화·청년문화의 변화 등은 개인의 자율성, 일상의 문화, 소비 욕구, 문화적 활동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소비자본주의의 자양분을 먹고 자랐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획일화하려는 문화코드에 자율적이고 싶어 하는 소수자들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특징지었는데 이 새로운 세대를 ‘문화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한국의 하위문화가 서구의 펑크족, 스킨헤드족, 모드족과 같은 ‘역사적 하위문화’를 논의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한국 하위문화의 존재는 미미하다. 그러나 하위문화가 역사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적인 발생의 자생성을 가지며, 그 개념이 함의하는 외연적 형태가 많은 이질적인 주체들을 생산한다는 점은 한국적 문화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위문화적 형태들의 특수성을 지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병신미¹⁸⁾, 잉여인간(剩餘人間), 루저와 같은 열

17) 이동연, 현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서울문화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의 대표적 문화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문화과학사, 1998),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문화과학사, 2002) 등이 있다.

18) 문화·예술의 무력화와 가난한 삶의 미학화라는 배경에서 태어난, 기대감소 시대 특유의 개념. 병신미란, 어떤 문화적 요소의 편차/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임근준, 「전혀 새로울게 없는 새로운 시대의 징후, GQ, 2013년 10월호」

패감 짙은 루저(loser)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극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사회에서 ‘루저’의 삶도 매우 중요해졌다. 루저문화는 값싼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형성된다. 어려서부터 취업 경쟁에 대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연수를 받는 등 높은 스펙을 쌓았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사회와 접촉가능한 면은 주로 인터넷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구조화된 경제위기의 일상화는 청년들의 미래를 예비노동자에서 잠재적 실업자로 만들었다. [작품 1] 〈인터뷰〉는 청년들의 필사적인 면접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쓰고 남는 인간, 남아도는 인력’이라는 뜻인 ‘잉여인간(剩餘人間)’으로 돌아가게 된다. 청년백수의 대부분은 대출자들로 취업 재수생, 삼수생이 양산되면서 취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자발적 외톨이가 되어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적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연한 패배의 정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유럽의 ‘천유로 세대’, 일본의 ‘비참세대’,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무한경쟁이 삶의 풍족함을 안겨 주었지만 정신적 풍족함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패배자’들은 소수의 ‘승리자’들을 동경하지만,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며 그들만의 표현방식, 즉 그래피티, 아트, 락 등으로 사회에 저항하는데 그림으로써 루저문화는 서구에서 시작된 반문화(counter-culture)¹⁹⁾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문화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집단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맥락적 요소 중 하나가 지배적인 소비 문화자본에서 탈주하려는 소수 집단들의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바로 스타일이다. 특정한 스

19) 반문화(反文化) 또는 카운터컬처(영어: counter-culture)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로서, 대항문화라고도 한다. 1960년대의 미국의 히피, 동성애 옹호론자, 여성 해방운동가 등이 이에 속한다.

타일을 통해 스스로를 타 그룹이나 일정한 멤버들과 구분하고 자신들의 저항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하위문화의 주요한 특징이다. 스타일은 패션과는 다르게 동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유행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에 맞게 생성된 몸의 표현이다. 스타일은 의상만이 아니라 언어, 몸짓, 사운드, 이미지, 가치관을 통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유행 형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개인들은 청년 하위문화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특별하고 기이한 문화적 취향을 드러내는 마니아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바이크족이 착용한 가죽점퍼나 부츠 등은 스타일이 ‘일종의 저항 형태’로 혹은 프랑스 극작가 장 주네의 표현에 따르면 ‘범죄가 예술’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후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착한’ 이미지의 연합군 병사들이 착용했던 갈색 가죽점퍼 대신 적국에 해당하는 검은 가죽점퍼 재킷과 모자, 부츠, 그리고 나치 문신(swastika) 등이 ‘쿨’한 스타일로 인기를 얻었다.²⁰⁾

본인의 [작품 1]에서 송곳이 박힌 가면은 슬립낫²¹⁾이라는 메탈밴드의 복장에서 차용했다. 슬립낫의 9명의 멤버는 모두 기괴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사회 불만과 욕설을 쏟아낸다. 락의 뿌리인 블루스는 노예 신분의 흑인들에게서 발전해온 것이다. 그래서 락은 사회를 조롱하고 주류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면서 발전했다. 기괴한 가면은 면접의 복장과 자세에 상반된다. [작품 1]의 복면 쓴 여자도 점잖은 면접태도를 하고 있지만 곧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일상의 긴장과 내면의 저항이 충돌하는 드라마를 시각화하였다.

[작품 3]에서 수갑은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처단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

20) 김홍기, 「월간미술 2010년 4월, 왜 패션을 입는가? 칼럼」

21) 슬립낫(Slipknot - 가끔 SlipKnoT으로 적기도 함)은 1995년에 결성된 미국 아이오와 주의 디모인 출신의 9인조 헤비메탈밴드이다., 2006년에 밴드는 Vol 3:(The Subliminal Verses)앨범에 수록된 곡인 《Before I forget》으로 ‘최고의 메탈 연주’ 부문에서 그래미 상을 받았다.

으로 볼 수 있다. 지나온 근대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서대문 형무소의 애국지사나 독재에 반대했던 많은 이들이 수감을 차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여기서 저항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려는 투쟁이 된다.

작품 속에서 표현된 패배자의 정서문화, 즉 루저문화의 사회적 메시지는 ‘저항’과 ‘소통’에 대한 갈망이다. 루저문화는 자기자신에 대한 패배주의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품고 있다.

2) 소비사회의 인체 표현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 달려드는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status anxiety)>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요약한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몸은 영혼이 극복해내야 할 감옥’이고 ‘불멸의 영혼을 담는 일회적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신의 우위론을 내세웠던 플라톤을 위시하여, 이후 전통 철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몸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소유되는 대상이었다. 육체와 정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고해왔던 서구 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육체에 관한 담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서구에서는 근대 이후에 와서야 특히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 Ponty)²²⁾가 몸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지각의 주체를 몸으로 보는 획기적 개념을 내놓았다. 인간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철학적 사유라는 정신 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자 모든 정신적 작용을 제약하는 근거가 바로 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1991년 보드리야르 (J. Baudrillard)는 현대사회에서 몸이 영혼을 대신해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생산보다 소비가 더 중요해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연결된 몸은 현대에서 자아 정체성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22)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후설(Husserl, E)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신체 행위와 지각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현상학과 철학을 전개하였다. 저서에<지각의 현상학>, <눈과 정신>등이 있다.

변화를 보인다. 사회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암묵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실포도류(類)²³⁾의 비난을 감수하며 수용하는 인간의 생존전략이 되어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현대 소비사회에서 그 어떤 것 보다 아름답고 귀중하며 멋진 사물이 인체이며, 인체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되었다. 아름다움은 여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지상명령이 되었으며,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타고난 결과도 아니며 정신적 자질에 덧붙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용모와 몸매를 자신들의 영혼처럼 신경 쓰는 여성들의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자질이며,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이 그러한 바와 같이, 육체의 세계에서 신(神)에게 선택된 표시이다.²⁴⁾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으며, 구원이라고 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에서 육체는 문자 그대로 영혼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본인 작품들의 인체는 가늘고 희며 매끄럽다. 성숙한 성인의 몸이라기보다는 갓 성인이 되었거나 그보다 어린 십대 후반 정도의 체형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리거나 젊어 보이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피부와 신체를 관리 받는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투자하며, 되도록 더 어린, 십대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의 상태를 욕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십대의 여성이 이십대의 얼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는 개의치 않고 환호한다. 그래서 본인 작품의 인체는 미성숙과 성숙사이의 단계, 노화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망의 표상이다.

인체들은 뼈와 근육의 세부적 묘사가 생략되어 있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형태며, 스프레이 건으로 채색되어 있어 실제 인체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표

23) <이솝우화> 에 나오는 이야기로 머리 위에 달린 포도를 따 먹으려고 안간힘쓰던 여우가 손이 닿지 않자 저 포도는 신 포도일거야라고 체념하는 과정의 내용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과 사고를 왜곡하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다.

24)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p196

현과 제작방식은 마네킹이나 인형, 피규어 등과 같은 대량생산되는 대중적 상품에 가깝다. 대중적 상품으로서 형태를 가지는 인체는 획일적 코드를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체'로서의 인체의 기능인 배설과 분비 기능을 추방하고 소거법에 따라 매끈매끈하고 상처 없고, 성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격리되고 또 그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보호된 사물로서의 육체에 대한 강박관념이 표현되었다.

마네킹과 피규어의 형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지만 이상적 미를 표상하는 마네킹과 환타지적 이상을 추구하는 피규어와는 다르게 작품의 인체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활발한 색상의 의복은 작품들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지만 현실의 비루함을 덮지는 못한다.

눈이 사라진 곳에 입이 자리하고 이를 드러내는 표현들도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작품 속 이는 대부분 본인의 이를 복제한 것으로 [작품 4]의 에일리언의 이와 [작품 7]의 소녀의 이도 본인 이의 복제이다. 치아는 소화를 돕는 신체기관이지만 변사체나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치아의 마모도나 치과 진료 기록을 통해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백골이 되어서도 나 자신의 물리적 존재를 증명해줄 이를 작품 속에 넣어 작품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작품과 작가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강화시켰다. [작품 6] 복면 속의 얼굴들은 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입이 대치되었다. 눈이 사라지고 입만 늘어난다는 것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서 욕망만을 쫓는 인간들에 대한 풍자의 표현이다. 이러한 '입'의 인체 기관의 치환을 통해서 소비사회의 야만성을 비판한다.

3. 작품분석



[작품1] 인터뷰

제목 - 인터뷰

크기 - 각 500X400X1200mm

재료 -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10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키고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준이 자본주의적 상품가치에 의해 획일화되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면 사람들도 자신이 한낱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도 수치스럽지 않게 된다. 면접(인터뷰)이라는 것은 가장 적나라하게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학력과 외모, 태도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당락을 결정한다. 면접자들은 면접에서 필요한 가장 올바르게 인정된 자세, 화장, 얼굴표정까지 익히고 면접 장소에서는 진실 된 '나'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력, 잘 관리된 몸매, 가식적 태도와 표정으로 포장된 '나'를 보여야 한다.

현대의 소비중심, 능력주의 사회는 사람을 분석하고 재단하여 분류한다. 구직을 위해 면접관 앞에 서는 순간, 20년에서 30년에 달하는 한사람의 삶이 총괄적 평가를 받게 된다. 지원자의 수는 합격자의 수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정적 결과를 받게 된다. 구직에서 탈락한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멸시,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는 자존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한다.

작품 〈인터뷰〉는 면접이라는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자신의 가치 또한 결정지어질 긴장된 순간에 혼란과 불안, 또는 욕망과 공포의 내적 드라마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검정색의 단정한 정장과 면접을 받는 동일한 자세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억압적 강요를 의미한다. 그러나 목 위의 형상들은 그 내면의 드라마들을 반영한다. 눈이 없고 입이 세 개인 머리, 입이 찢어질 듯 억지로 웃고 있는 머리, 뽀족한 가시가 박힌 가면 머리, 복면을 쓰고 있는 머리,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듯 머리카락을 날리고 있는 머리, 그 각각의 사연들을 가진 머리들은 획일화된 코드의 부속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서 존재한다.



[작품2] 트랩트

제목 - 트랩트

크기 - 1500X500X1300mm

재료 - F.R.P, 강철, 우레탄 도장

제작년도 - 2011

여학생의 다리를 잡은 멧돼지 같은 대형 야생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강력한 덫이다. 교복을 입고 머리띠를 한 소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다리사이로는 하얀 속옷이 보인다. 가녀린 소녀와 무자비한 멧은 강렬한 대비로 한국사회의 잔혹함을 더욱 심화시킨다. 아직 성인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10대 여학생의 불안한 내면과 사회적 폭력에 관한 이 작품에서. 멧은 상처받기 쉬운 영혼 근처에 산재해 있는 두려움과 견뎌내기 버거운 고통을 의미한다. 한국의 십대란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 '보호'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성인이 되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질마케팅과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작품이다. 인체 주변의 덫들을 설치해서 접근을 두렵게 만들어 스스로 빠져나올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무력함을 표현했다.



[작품3] 긴급체포

제목 - 긴급체포

크기 - 800X1200X450mm

재료 - F.R.P, 짐바브웨 지폐,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12

여직원 긴급체포는 한국사회 젊은 세대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작품에서는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엎드려져 수갑이 채워져 체포당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펼쳐진 가방 안에서는 돈다발이 쏟아져 바닥에 흩어져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진 그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 죄책감과 두려움을 모르는 듯하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회사의 돈 수십억을 횡령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들을 접한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무원 등의 직업은 길고 고통스러운 학업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같이 유래 없는 취업난 속에서 한국사회의 승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전에는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애 등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낙오자가 행하는 특유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면 물질과 이기심에 집착, 일에 대한 헌신적인 직업윤리를 상실해 버린 타락된 자본주의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녀가 횡령하려했지만 체포되어 바닥에 나뒹구는 돈들은 실제 짐바브웨의 100조, 50조짜리의 지폐들이다. 짐바브웨는 급격히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010년 정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200만%, 실제 900만%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돈상자를 지고 가야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짐바브웨 정부에서 발행한 100조달러 지폐는 계란 3개 가격이었다. 여직원이 횡령하여 도주하려했던 돈은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돈이었다. 가치가 없는 돈을 가지고 도주하려다 체포된 역설적 상황을 통해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4] 루 저

제목 - 루 저

크기 - 500x1900x500mm

재료 -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12

작품 ‘루저’ 머리의 형태는 에일리언이다. 에일리언은 SF 영화 속에 나오는 강력한 외계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몸을 숙주로 기생하다가 성체로 성장하면 인간의 몸을 뚫고 나오는 두려운 존재이다. 강인한 육체적 활동성으로 마케팅 하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점퍼를 입은 이 인물은 가느다랗고 볼품 없는 다리로 육체를 지탱하고, 발가락은 슬리퍼 밖으로 튀어나와있다. 제목 그대로 ‘패배자’의 이미지로 구상했던 이 작업은 사회적 패자들의 열패감 속에 잠재된 분노와 폭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숙주에 의한 기생을 통해 성장하는 에일리언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성장하기 힘든 인간의 모습과 닮아있다. 에일리언과 결합된 근본적으로 나약한 인간은 사회 밖으로 밀려난 패배자의 모습이다.



[작품5] 테러리스트



[작품6] 맹목적 의지

[작품 5]

제목 - 테러리스트

크기 - 450X200X400mm

재료 -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09

[작품 5] ‘테러리스트’는 복면을 쓰고 노란색 폴로셔츠를 입고 기형적으로 커다란 입을 가진 인물이다. 복면과 입은 인간의 욕망과 폭력을, 그에 반해 미국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폴로셔츠를 입혀 모순된 사회를 표현한다. 복면은 자본주의 서구국가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연상할 수도 있고 작가는 은행이나 편의점을 터는 강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 복면은 작품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의미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복면과 같이 자주 표현되는 것이 인간의 ‘이가 드러난 입’이다. ‘테러리스트’에서는 과장되게 커다란 입과 드러난 이로 노골적인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비뚤어진 인간성을 드러낸다.

[작품 6]

제목 - 맹목적 의지

크기 - 각 400X160X80mm

재료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12

[작품 6] ‘맹목적 의지’는 복면을 쓴 얼굴에 눈이 있어야 할 부분에 다시 입이 있으므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맹목적인 욕망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또한 실제 없이 비어있는 듯 납작해져 못에 걸려있는 모양이 욕망의 공허함을 나타낸다.



[작품7] 라코스테걸

제목 - 라코스테걸

크기 - 1650X600x400mm

재료 -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09

라코스테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걸치고 있다. 이 작품은 브랜드의류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멋을 냈지만 불안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소녀의 모습이다. 의도적으로 브랜드의 로고를 노출시킨 작품들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소녀보다 먼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보다 사물에 둘러싸인 느낌, 생생한 삶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 속에 희미해져버린 삶을 표현한다.

이미지는 화사하지만 현실은 지루하고 초라하다. 이미지가 쓸모를 압도하면서 빛어지는 문제점은 현실의 생생함이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녀의 인간적 본질은 희미해지고 브랜드만이 남는다. 우리는 브랜드를 입음으로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동일화한다. 그래서 브랜드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자아개념이 강화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입고 다이어트를 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위계질서를 차지하려고 애쓴다.



[작품8] 어반 아나콘다

제목 - 어반 아나콘다

크기 - 700X2500X600mm

재료 - F.R.P, 우레탄도장

제작년도 - 2009

신자유주의는 자주 '정글'에 비유된다.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삶의 원칙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실제 정글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야만적이라고 확신한다. 정글 속 원주민은 아나콘다와 독충이 두렵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 우리는 강자의 약자 착취와 무한경쟁의 고통에 시달리며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 위에서 쫓고 쫓겨 다니는 진정한 야만의 삶에 내던져져 있었다.

III. 결 론

본 논문의 1장 작품의 형성배경 ‘저항예술의 사회적 기능’에서는 사례를 통해 예술은 사회를 반영하며 비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에서는 지위의 불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생명의 중요성과 자존감의 박탈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불안과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불안심리’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원리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 시켰으며, 한국사회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2장 작품의 표현방법 ‘청년세대 하위문화의 표현’에서는 소비사회시대로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적 자율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세대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특정한 스타일을 통해 문화적 획일성과 사회적 체제를 거부하는 하위문화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루저문화’가 대다수의 패배자들의 공감을 통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패배자의 정서가 본인 작품 속에서 사회 저항의 형식으로 표현됨을 살펴보았다.

‘소비사회의 인체 표현’에서는 소비사회의 인체는 관리되는 자산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기호형식이며, 관리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작품 속의 인체들은 성숙 전(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량생산되는 상품 같은 인체 묘사를 통해 획일적 코드를 강요하는 사회를 풍자했다. 3장 작품 분석에서는 앞장의 이론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청년하위 문화의 저항적 의미를 통해 현대사회를 풍자하는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함의 기초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어질 작품의 이론적 개념을 확립하였다. 본인은 이번 논문의 연구기회를 통해 좀 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가며 다양한 매체의 작품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논문의 주된 견지가 사회적 이론과 시각으로서 아직 개인적 가치관과 시각적 정립이 되지

않음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저항적 성격의 미술과 대중 문화적 소통의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작품 활동의 깊이와 다양함이 생겨 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생겨난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 「이미지와 의 전쟁」, 개마고원, 2000
-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 하우스, 2011
- 방혜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0월호」
- 배 민, 「우리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책과 나무, 2013
- 안영현, 김지혜 「프랑스 68운동과 미술의 변화 : 미술의 대중화와 저항미술의 부상」,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7권 1호 통권 제 13집39 /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 2005.02.25
- 알랭 드 보통, 「불안」, 이레, 2005
- 이동연,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문화과학사, 1998
- 우석훈, 박권일 공저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문화출판사, 1991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03
- 한윤형, 최태섭, 김정근 공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1

ABSTRACT

Study on Body Expression about Uneasiness Mind

- On the basis my work -

Jin, gui-one

Dept. of Public art

Special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Undoubtedly an art work or a fine-art work is 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on the basis of society which it roots in, not being produced from a lonely genius's inspired creation. The statement 'An art work is a mirror reflecting the society' can be easily agreed when we closely look into the fine-art's history. From an art work, we can glimpse the situations and the trends in the times when an work was/is produced in a work's expression format as well as its theme.

I think that the senses of uneasiness for the future, frustration, and deprivation felt by me while activating in Korean art world is not different from the harsh real world where the young generation suffers from. So I started to produce a work reflecting our society in the

background of our society's structural contradiction, social oppressive values, and the civilized society's irrationality.

The easiness equals the uncertainty. If a threatening thing is 'uncertain' and its location is 'indefinite' and its shape is 'unclear', we can't cope against it and our survival is endangered. Through this study, I aimed to investigate the loser's emotions being appeared in my work and my work's formal representation through the influence of 'uncertain threat' on Korean society and the young generation's sub cultures spun off it.

Additionally, through this work, I intended to review the 'uneasiness' forming the foundation of my work, and tried to set a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as a new foundation for my work directio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resistance art's social roles and functions, and interpreted Korean society's irrationality and problems as the side effects of consumer capitalism, and analyzed my work lending young generation's sub culture codes. Then I intended to study the formative foundation on my work satirically expressing Korean society's uneasiness and brutality.